

한국농어촌공사, 「제3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 환경조성 공공부문 서울시장상 수상

- 지역주민의 추억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담은 '곡성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제3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에서 '곡성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이 환경조성 공공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2023 제3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내일로 변화시키고자 진행된 공모전으로 환경조성, 서비스, 제품 등 3개 공모 분야로 나뉜다.

** 유니버설 디자인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공사는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이라는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유니버설디자인 건축·공간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조성 공공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곡성 목사동면 하모니 힐링스쿨'은 1999년 폐교가 되어 방치되던 평호 초등학교와 그 부지를 목사동면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중심 커뮤니티 시설로 재탄생된 공간이다.

목사동면을 둘러싼 삼산(세개의 봉우리)을 모티브로 건축물의 지붕 형상을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며, BF인증 취득과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내외부 단차가 없이 드나들기 편리한 들말센터(프로그램실, 카페 등), 들말체육관, 급식실, 야영장 등으로 시설물이 구성되어 있다.

이병호 사장은 "하모니 힐링스쿨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지속가능

한, 건강한 농촌 마을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농산어촌 공간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촌공간개발처 농촌공간디자인부	책임자	부 장	최찬원 (061-338-5441)
		담당자	대 리	최유리 (061-338-5450)